

# 조사권과 징계권 사이, 학생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 성평등 상담실의 한계

이근한 기자 dlmsgks21@knu.ac.kr

2016년 2월 29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국어국문학과의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대학생의 제보글이 게시됐다. 2년 뒤 2018년 3월 13일 경희대학교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대학원생의 폭로가 KBS 9시 뉴스에 보도됐다. 두 사례 모두 학생들은 학내 성평등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SNS나 대자보 그리고 언론제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을 택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가고 있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언론 등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속속 밝혀지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대학교수 신분인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교육부는 대응책으로 지난달 27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고등 교육 정책과 임종일 사무관은 "올해는 성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학내 성평등 기구의 전제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현재 대학의 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상반기에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성평등 기구에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성평등 상담실'이 있다. 대학이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문제에 있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쏟아지는 시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4년제 대학 196개 학교 중 110개에 성폭력 및 인권 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성평등 기구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신속하고 공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성평등 기구는 학내 구성원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사법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인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부산대학교 성평등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원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문제와 같은 경우, 신고인이 원하는 해결책은 다양하다"면서 "사법처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해결방법을 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원장은 "사법기구는 신고인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오직 형벌이라는 해결책만을 제시해준다"면서 "학내 성평등 기구는 신고인에게 덜 부담스럽고 형벌 외의 격리, 유급, 사과 요구 등

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며 성평등 기구의 학내 자치적 해결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 학생이 상담실을 찾지 않는 두 가지 이유

하지만 학내 성평등 기구를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의 인식은 기구가 표방하는 역할과는 달라 보인다. 상술한 두 사례에서 보이듯이 두 학생은 성평등 상담실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취재 결과 신고인이 학생이고 피신고인이 교수일 경우 학생은 성평등 상담실에 찾아가길 꺼려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신상 공개 위험'과 '해당 피신고인의 처리를 결정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다.

'학생과 교수 관계의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문제의 경우, 학생은 왜 성평등 상담실을 찾지 않는가?'에 대해 우리학교 상담실리를 전공하는 이빛나(일반대학원 교육학 2017) 씨는 "대부분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교수에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어국문학과 사례 학생 또한 진상조사를 거부했다.

성평등 상담실의 사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 ▲사건 조사 ▲심의의 과정 ▲사건 처리 ▲결과와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결과와 통보'는 성평등 상담실에서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징계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 조사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위해 피신고인과 신고인을 면담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상이 피신고인에게 전해지게 된다. 서울캠 성평등 상담실 김미경 계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평등 상담실은 사건 조사 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요청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며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서 "그러나 모든 문제의 진상 조사에 있어서는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의 신상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는 과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만약 진상 조사 결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가 약할 경우, 해당 교수는 다시 강단에 서게 된다.



(사진=이근한 기자)

문제는 이 다음 발생한다. 바로 신고인이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다. 특히 대학원 생활 경우 졸업 전까지 다시 해당 교수를 마주해야만 한다. 그리고 교수에게는 대학원생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가 갖는 힘은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47명의 전국 대학교수 중 43%는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 그들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이다.

## 징계위원회 징계 공정성에 대한 불신, 학생 목소리 필요

'만약 당신이 교수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하윤(러시아학과 2017) 씨는 "신고는 하겠지만 성평등 기구를 이용할지는 의문이다"며 "성평등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가해자 교수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신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한편 성평등 기구에 보내지는 불신의 시선은 기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성평등 기구는 징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평등 기구의 역할은 대책위

원회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실상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문제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인 학생의 시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한국에 만연한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성범죄 문제에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소위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학생 대표 1명을 추가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이진원 비서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성범죄 문제에 어떠한 것들이 가장 불만이니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다"며 "답변은 성범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교수는 학내에서 힘없는 교수가 아니다"며 "그러한 교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수에게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국제캠 교수 1명 ▲서울캠 교수 1명 ▲의료기관 교수 1명 ▲법인이사회 이사 1명 ▲외부 변호

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 법제376조에 따른 것으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 기획한 질문

### "왜 상담실에 안 가세요?"

성범죄 가해자는 그 행위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고 저지르지 않는다. 특히나 대학교수 정도의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알고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일방향적 권력 구조이며, 우리 삶의 곳곳에 이러한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평균 2~3명으로 구성된 성평등 상담실에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미투운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항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신상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라"는 주장은 가혹하다.

'성평등 센터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학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평등 기구와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다. 가까이에 있는 성평등 상담실에 찾아가지 않고 다른 수단을 택하는 학생들에게 '왜 성평등 기구를 찾지 않는가'는 질문 또한 가혹하지 않을까.



## 2018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9·60기 후보생모집안내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9기(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60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8년 3월 1일 ~ 4월 4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4. 7.(토), 합격자 발표: 4. 26.(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4. 28.(토) ~ 5. 25.(금), 합격자 발표: 6. 20.(수)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5. 14.(월) ~ 7. 27.(금), 최종 합격자 발표: 8. 17.(금)
- 문의처: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서울캠 학군단: 02) 961-0085 / 국제캠 학군단: 031) 201-3271~4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